

## 이준석 대표, 장동혁·조국에 '특검' 회담제안…張 "수용"·曹 "거절"

혁신당 "신천지 의혹도 포함해야…개혁신당, 국힘 살리기 나선 수사방해 야합"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제명된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공천현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입법 논의를 위해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 회동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께 요청한다. 애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야권 3당 회동에 대해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와 김병기-강선우 돈 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검법 신속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을 겨냥해 "돈 공천이라는 명징한 혐의 앞에서도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통일교 특검도 시간만 끌며 끊기고 있다"며 "여당이 이렇게 법치를 형해화하는 것을 오래 지켜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혁신당을 향해 "부패

한 여당에 맞서 특검과 공정 수사를 암박하는 것이 야당의 본분"이라며 "이념과 정체성을 각자 내려놓고 국민이 선출해준 애당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애당 대표에게 금일중 별도로 연락해 취지와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호응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사건과 공천뇌물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조건을 붙이는 것은 특검법에 진정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만나서 조율할 문제"라며 "조국 대표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당초 국민의힘은 "혁신당의

태도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추진 여부를 말할 수 있다"(최보윤 당 수석대변인)며 유보하는 입장은 내놨었다.

박 대변인은 "여당발 버리의 혐의에 대해 애당의 공조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살리기에 나선 셈이다.

"수사방해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정작 돈 공천의 구태를 혀파해야 할 때 국민의힘 뒷수습에 협조하는 모양새는 개혁신당의 자기부정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 대표의 '야권연대' 운운은,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에 반한 것이다.

정도를 가자"고 덧붙였다.

서원진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은)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돈 공천 문제 등과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앞장서 주장하고 있다"며 "(특검 대상) 신천지를 포함하는 문제에 반대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위한 주장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이지 않는 다"고 말했다.

진정화 기자

## TS "눈오면 무조건 감속…안전수칙 준수해야"

최근 3년간 눈 올 때 교통사고 치사율(1.46), 맑음 일 때(1.24)보다 1.18배 높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오늘도 무사고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겨울철 눈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눈오면 무조건 감속, 앞 차와의 충분한 거리 유지 등 안전운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눈 올 때 교통사고 건수는 총 3,159건, 사망자 수는 총 46명으로 집계됐다. '눈 올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1.46(명/100건)으로 '맑음' 일 때 치사율 1.24(명/100건)보다 약 1.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눈 올 때' 고속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3.97(명/100건)로 '맑음' 상태 치사율 3.40(명/100건)보다 약 1.1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국도에서는 '눈 올 때' 치사율이 2.92(명/100건)로 '맑음' 일 때 치사율 2.05(명/100건)보다 약 1.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 급제동·급핸들조작 등 급격한 차량 조작 금지 ▲ 결빙 예상 구간 절대 감속 ▲ 눈길 진입 시 앞 차의



음지, 비탈면 구간 등을 운전 시에는 절대 감속 운전이 필요하며, 급제동이나 급가속, 급핸들 조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겨울 빙판길에서는 제동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감속 운전을 해야 한다.

실제 TS가 2021년 시속 30km 조건에서 마른노면과 빙판길 제동거리를 비교해서 실험한 결과, 시속 30km에서 승용차의 제동거리는 빙판길 기준 10.7m로 마른 노면(1.5m)에 비해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조건에서 화물차의 빙판길 제동거리는 마른노면 제동거리(2.7m) 대비 4.6倍(12.4m)이고, 버스의 빙판길 제동거리는 마른노면 제동거리(3.6m) 대비 4.9배(17.5m) 더 미끄러지고 나서 정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겨울철 눈길에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평소보다 감속 운전, 앞 차와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운전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면서 "생활 속 안전수칙 실천으로 교통사고 걱정 없는 안전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 주택금융공사, 부산 교통 취약지역 주민 위해 차량 전달

종합사회복지관에 맞춤형 이동 차량 2대 지원



선정해 해당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차량을 기부했다.

부산 남구에 위치한 김만종합사회복지관은 언더파 오르막길이 많은 지형을 감안해 승합차를 지원했으며, 동래구에 있는 사직종합사회복지관에는 주거 밀집지역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경차를 전달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관 이용과 현장 방문 활동의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지원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송원 기자

## 우리은행, 전문가가 Pick해 주는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전문가·AI 기반 자산관리 체계 구축…종합 플랫폼으로 진화 추진



한 '저립기 포트폴리오'는 △공격 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등으로 구성됐다.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필요한 '인출기 포트폴리오'는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등으로 구성되어 자산형성 시기나 투자성향에 따라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단순히 상품 추천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맞춤형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AI 기술과 전문가 기반의 고객 중심의 개선된 서비스로 고객이 장기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토탈 연금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AI 기반 일인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통해 자동화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4대 은행 중 유일하게 기업금액 제한 없는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 면제를 통해 고객 부담을 낮춰 고객 중심의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은퇴 전 연금자산을 모으는 시기에 적합

## CJ푸드빌 뚜레쥬르, '가스파드와 리사' 컬래버레이션 딸기 신제품 3종 출시

'가스파드와 리사' 감성 담은 딸기 신제품 3종 출시.. 맛과 디자인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무드 담아

2월 11일까지 신제품 출시 기념 추첨 통해 한정판 키링 증정 프로모션 진행



버터 품미가 가득한 그늘 모양의 바삭한 패스트리 안에 상큼하고 달콤한 딸기잼과 라즈베리잼, 고소한 퍼스티치오 패스트리 조화

를 이루는 제품이다.

'딸기 마블 샌드'는 촉촉한 흰 크 마블 식빵 사이에 달콤한 딸기 우유 맛 생크림을 가득 채워 누구

나 부담 없이 맛있게 즐기기 좋은 제품이다.

특히 핑크 컬러의 딸기 마블과 생딸기를 토끼 귀 모양으로 연출한 데코레이션을 더해 '가스파드와 리사' 특유의 귀엽고 로맨틱한 감성을 강조했다.

'마스카포네 딸기 소보로'는 푸른 딸기 빵 위에 소보로 토핑을 올려 고소한 맛과 바삭한 식감을 더하고, 그 안에 부드럽고 진한 마스카포네 크림을 가득 채웠다.

여기에 신선한 생딸기와 라즈베리잼을 더해 크림의 깊은 품미와 딸기의 상큼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디저트처럼 즐기기 좋다.

이현진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올해부터 고객의 생애주기와 투자 성향에 맞춰 표준화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Pick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서비스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전문가 기와 AI 기반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퇴직연금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전문가 Pick 포트폴리오'サービ

이송원 기자